

수입산 너마저... 과일값이 너무해

사과·배 등 1년 새 3배 급등 수입과일 관세 면제 종료에 망고 24%·바나나 9% 상승

“며칠 전 만해도 수입 과일 가격이 그럭저럭 괜찮아 자주 사먹었는데, 어느새 가격이 올라 부담스럽네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더 크게 오를 텐데 걱정입니다..”

국산 과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대체재로 떠올랐던 바나나, 망고 등 수입 과일의 가격마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산 과일은 연감생심, 수입 과일 가격마저 강세로 돌아서면서 시민들의 혼신이 깊어지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가락시장 기준 사과(후자·10kg)는 평균 11만 7475원, 배(15kg)는 8만 1093원에 거래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2.1%, 58.7% 오른 가격으로, 사과와 배 등 국산과일 가격은 지난해보다도 6% 가량 올랐고 고 상승세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15일 기준 사과(후자·10개) 소매가는 2만 7437원이었지만, 지난 5일 기준으로 사과 소매

가는 2만 9100원에 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비싼 국산 과일을 대신해 지난해 연말까지 관세 인하 덕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진 수입 과일을 구매해왔다.

지난달 14일 정부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수입과일, 식품원료 10개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나나 3만 t, 망고 1300 t, 자몽 2000 t 등 수입과일에 대한 관세가 기존 30%에서 0%까지 낮춰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값싼 가격에 수입 과일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 면제가 종료되면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수입 과일 가격은 국산 과일과 마찬가지로 치솟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기준 대표 수입 과일로 꼽히는 바나나(100g) 소매가는 330원으로 전날(307원)보다 7.5% 올랐고, 망고(1개)도 6221원으로 1.8%(110원)올랐다.

수입 과일 가격 상승은 할당관세 종료와 함께 사과·배 등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국산 과일의 대체품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량을 정해 낮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면제하면서 수입과일 수입

업체의 납품가는 10%가량 인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망고 23.6%, 바나나 9% 등 수입 과일의 소매가 하락세가 뚜렷했지만, 연말이 지나고 할당관세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급 대비 수요가 폭증한 수입과일의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듯 국산 과일은 물론 수입 과일까지 사먹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는데, 실제 과일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까지 관세법을 개정하고,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관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과일 등 과일류 21품목에 대해 1351억원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할당관세 173억원에 견줘 7배이상 커진 규모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은 바나나 15만 t, 파인애플 4만 t, 망고 1만 4000 t, 자몽 8000 t 등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될 시 기존 30%였던 수입과일에 대한 관세가 0~10%까지 낮춰지게 되면서 수입과일 물가가 안정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할당관세로 수입 과일 가격이 잠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전반적인 과일 가격 인상이 있는 만큼, 얼마나 오랜 기간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시도때도 없이 나오는 철없는 딸기

겨울 대표 열매채소 등극... 1년 내내 다양한 품종 생산

농사를 짓는 나도 누가 물어오면 멈칫하는 문제가 있다. 제철 과일에 대한 질문이다. 예전과 달리 재배환경이 달라지면서 딱히 과채류가 나는 철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작물이 딸기인데, 딸기의 제철이 언제냐고 물으면 당황스럽다. 노지(밭) 딸기가 나오는 4-5월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우스 딸기를 맛볼 수 있는 12월이나 겨울이라고 답하기도 애매하다. 그렇다고 스마트팜 딸기가 생산되는 시기를 제철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딸기는 원래 제철이 늦봄이었지만 비닐온실의 보급으로 2021년 기준, 한 해 생산액이 1조 4757억 원에 달하는 겨울 대표 열매채소가 됐다. 수입 오렌지보다 향산화 함량이 2배 높고, 비타민C 함량은 1.3배, 폴리페놀 함량은 1.1배 높다. 하루 7-8알이면 성인 비타민C 권장 섭취량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요즘은 딸기가 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1년 365일 내내 판매되고 있다. 하우스 딸기를 시작으로 스마트팜 딸기까지 나오면서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맛이 좋고 영양소가 풍부한 딸기는 의외로 노지에서 자란 딸기다. 재배종 하우스 딸기가 주를 이루면서 보기 힘들어졌지만, 봄의 따뜻한 햇빛과 자연의 양분, 적합한 기후에서 자란 노지 딸기는 하우스나 스마트팜 딸기에 비해 당도도 뒤지지 않고 특히 영양 성분이 뛰어나다.

딸기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하우스 딸기가 등장했는데, 설탕과 축항, 금실 등이 대표적인

품종이다. 1-5월이 제철이며 품종에 따라 12월부터 2월인 것도 있다. 하우스는 인위적으로 온도 및 조명이 가능하고, 습도 유지에 도움을 주어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또 노지 재배에 대비해 강풍 등 천재지변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맛과 향이 좋은 편이다.

이에 반해 스마트팜 딸기는 스마트팜이란 공간에서 1년 내내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 초기에는 가을이나 겨울 비싸도 꼭 필요한 곳에 공급되는 정도였고, 당도 또한 노지 딸기와 비교하면 면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 햇빛 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품질이 좋아졌으며 당도 또한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 노지나 하우스 딸기와 비교해 당도가 유사하거나 그 이상까지 나오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재배환경 변화는 우리나라 과일 판매 순위도 바꾸게 했다. 최근 이마트에서 발표된 1년간 가장 많이 팔린 과일은 딸기와 포도였다. 과거에는 사과와 귤이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딸기와 포도 등이 사시사철 출하되고 소비자의 트렌드가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서 껍질을 꺾거나 벗겨야 하는 과일의 인기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며칠째 강추위에 눈도 많이 내렸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 풍년이 든다’라는 속담이 있으니 올해도 풍년을 기대해본다. 농사 환경이 변화해 과채류의 제철 따지기가 어려워졌지만, 농부들은 사시사철 순리대로 열심히 키워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bigkim@kwangju.co.kr

세계 홀린 ‘김’ 수산식품 수출 전인...30억 달러 넘어

지난해 수출액 30억400만달러 김 7억9000만달러 사상 최대

국내 수산식품 수출액이 2년 연속 30억달러(약 3조9000억원)를 넘었다. 이 중 김 수출액은 7억 9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로 사상 최대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0억 4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2년 기록한 역대 최대치인 31억5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김 수출액이 전년 대비 22.2% 증가한 7억900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다. 잡치 수출액은 5억6000만달러(약 7300억원)를 기록했고 굴 수출액은 8600만달러(약 1100억원)였다.

해수부는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작년에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수산식품 수출팀’을 구성해 수출기업을 지원해 왔다.

부산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도 열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에도 수출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현장으로 찾아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9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김 수출액은 6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늘었다. 또한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올해 김의 수출액(잠정치)은 7억1천1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7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대형마트에 진열된 조미김. /연합뉴스

남아도는 쌀...정부양곡 40만t ‘사료용’ 처분

농식품부, 보관비용 등 부담 해소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총 40만 t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의 양곡 재고량은 지난해 11월 기준 169만 t으로 적정 양곡 재고량(80만~100만 t)을 한참 웃돌았다.

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잇따른 양곡 시장 격리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과포화된 정부 양곡 재고를 줄여 양곡 보관비용 등 부담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적정량을 초과한 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 시중에 유통되는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료용도로 정부 양

곡 7만 t을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수확기를 거치며 양곡 처분량보다 늘어나는 재고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1월부터는 총 40만 t까지 사료용 정부 양곡 처분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양곡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과 정부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해 국산 양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도 용도의 사용 및 부정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양곡을 파쇄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정부 양곡 사료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정부 양곡이 사료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